소년단

1959. 5

5월의 하늘 아래

전 초 민

5월이 왔다.
5월은 새움이 트고 꽃이 필때,
맑고 푸른 하늘엔 비둘기 떼 날아 돌고,
넓고 넓은 거리엔 붉은기 파도친다.

오늘은 5. 1절!
땅을 구루는 발굽 소리,
하늘을 흔드는 노래'소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들은
어깨 겯고 나섰구나,

축하를 드리자 소년들아,
기'발을 흔들며, 꽃다발을 흔들며,
우리의 마음속에 꽃씨를 뿌려준
저기 주석단에 태양처럼 서 계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축하를 드리자
5개년 계획을 이해로 끝내자고
말고삐를 틀어쥔 천리마의 기수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들에게.

맹세를 드리자 소년들아,
우리를 착한 사람되라고, 행복해지라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넓고 밝은 교실에서
마음껏 배우며 뛰놀게한
크나큰 어버이 로동당에.

강물은 언덕 우에 올라서 발굽에 흐르고
용광로의 쇠'물은 시간마다 이땅을 빛내거니
아, 행복한 이나라
우리는 미래의 주인,
우리에겐 할일도 많거니,

맹세를 드리자 소년들아
우리는 더 잘 배워 더 잘 일해
으젓한 기사와 기수가 되여
슬기로운 로동의 대렬 속에 서서
공산주의 락원의 대문을
형과 누나들과 함께 열겠노라고.

헐벗고 굶주리는 남쪽 아이들을
도와줄 날 손꼽아 기다리며
온 세계 소년들과 손을 맞잡고
평화 위해 싸우겠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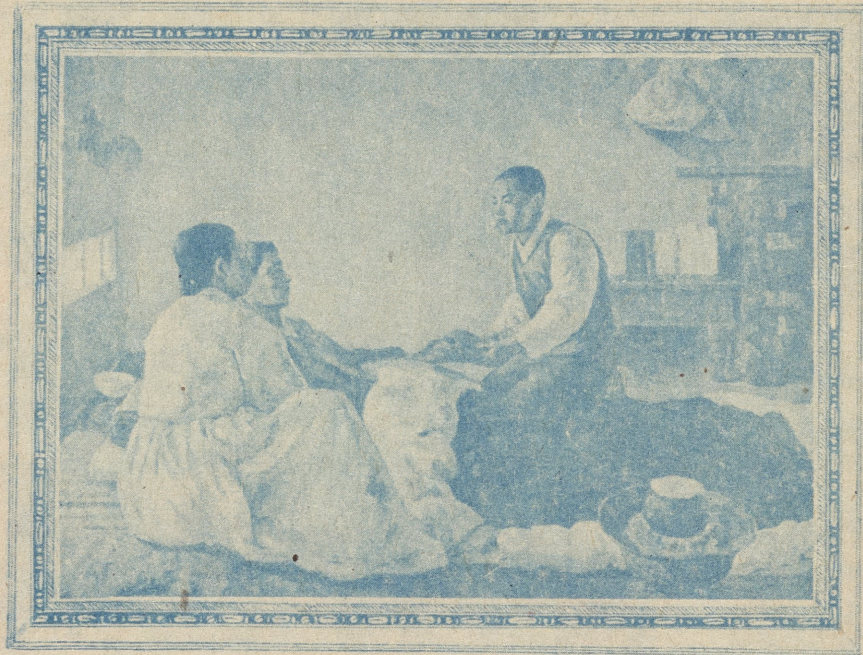
생명같이 귀중한 소년단 맹세드리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 아래
물'결 같은 대렬속에 함께 섰음을
자랑하자 소년들아, 조국의 꽃봉오리들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5호 내용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2 회)

리 호일

아버지의 유언을 받으시는 김 일성 원수

우리는 한폭의 유화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엄숙히 섭니다.
아버님의 간곡한 유언을 받으시는
원수님의 심장과 함께 고동치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마치신 김 형직 선생
혁명의 피'자욱 스민 권총을
원수님에게 주시며 유언 하시거늘

원수님 열여섯살 가슴에, 붉은 심장에
불같이 뜨겁고 엄숙한 맹세 다져졌습니다.
악독한 일제를 조국 땅에서 몰아 내고
조선의 완전 독립 이룩하리라고—

공청 회의를 지도하시는 김 일성 원수

해'빛은 따사로히 유리창으로 스며 들고
우리는 별눈 반짝이며 방에 들어 서는데
하이얀 벽에 걸린 유화 속에서
원수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이야기 하시는 듯…

간악한 일제의 경계망을 뚫고서
원수님은 공청 회의를 지도 하셨습니다.
길림시 북산 울창한 숲 속에서
약왕묘 마루청 밑 지하실에서

십오세 가슴에 공청원의 영예 지니시고
빛나는 혁명의 첫걸음 내 디디였으니
뉘라서 그 불패의 길 막을 수 있으리

피 끓는 애국 청년들의 첫머리에 서서
위대한 레닌의 사상 가르치시였나니
원수님 걸어 오신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
태양처럼 우리의 가슴에 비'발칩니다.

길림 감옥

친한 동무 어깨 동무 붉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바라 보아 눈시울 뜨거워지는 이 사진 앞에서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간고한 날 그려봅니다.

심자형 감옥 청사 수십개의 감방
원수님 가쳤던 곳이 선히 떠오르고
볼수록 증오와 격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륙십근 무쇠로 손발을 얽어매고
팔십오근 족쇠로 잠구어 놓고 고문해도
십팔세 청년 혁명가의 투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악형의 채찍도 피젖은 감옥 생활도
위대한 심장 속의 불'길 끌 수 없거늘
원수님은 출옥하신 이듬해 1931년
영광스러운 공산당에 입당하시였습니다.

빨찌산의 딸

글 조정철　　그림 오영복

남포시 지울리에 있는 그전 평양 학원에서 동쪽으로 약 한 킬로메터쯤 떨어져 있는 낮은 산 우에 검정 울타리를 친 곳에 무덤 하나이 호젓하게 놓여 있으니 이 무덤이 바로 "빨찌산의 딸" 정 경복 동지의 무덤이다.

이 무덤 옆에는 비석 하나이 무덤을 지키듯 서 있다. 지나 가던 사람이 있어 이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읽는다면 누구나 금시 경건한 마음으로 무덤의 주인공인 정 경복 동지의 죽음을 애달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 정 경복 (별명 정 만금) 동지는 1924년 3월 15일 만주 연길현에서 태여나 아홉살 때에 반일 유격전에서 부모를 여이고 외로이 남의 손에 자라 온 가엾은 조선의 한 녀성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혁명의 피가 흐르고 있어 8세 때에 아동단원이 되였고 벌써 9세 때에 아동단 분대장으로서 반일 유격 전투에 참가한 이래 10여 성상을 나어린 녀성의 몸으로써 직접 총검을 들고 조국 해방을 위하여 수십회 사선을 넘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일제와 싸워 왔다》

이것이 무덤'가에 서 있는 비석에 씌여진 내용의 한 토막이다.

이 비석에 새겨진 바와 마찬가지로 정 경복 동지는 낯선 만주 땅에서 태여난 한 떨기의 꽃봉오리로서 부모님이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국 해방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 김 일성 원수께서 조직하시고 령도하신 아동단에 참가하여 직접 총검을 들고 수십 수백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싸우다가 드디여 바라고 바라던 8.15의 조국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동지는 8. 15 해방

을 맞이하여 그리운 조국에 돌아온지 2년도 채 못되는 1947년 6월 4일에 겨우 24세의 짧은 그러면서도 길이 빛날 공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그의 전우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애도하고 추억하는 나머지에 동지가 걸어온 고난에 찬 혁명의 길을 더듬어 보려고 한다.

가시 밭

정 경복 동지의 어렸을 때 이름은 만금이라고 불렀다.

만금이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군의 어느 한 자그마한 농촌이였다

만금이의 아버지 정 치범 (1908년생)은 가난한 소작인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늙은 부모를 모시고 지주의 갖은 학대와 멸시를 받아가며 그날 그날을 살아 왔었다. 그러나 날을 거듭할 수록 심해가는 지주놈들과 일제 강도놈들의 시달림에 견디기 어려워 더는 고향에 오래 살 수 없게 되였다.

할 수 없이 정 치범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설은 만주 땅으로 건너가 중국인 지주 밑에서 겨우 농사를 짓게되였다.

그러나 일제의 마수는 만주에도 가는 곳 마다에 뻗쳐 있었다.

더우기 놈들은 9. 18 소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로 쳐들어와 중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을 압박, 착취, 학살하기에 미쳐 날뛰였다.

이런 때 정 치범은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때는 1931년! 만금의 아버지는 살길은 오직 일제와 싸우는 길만이 있을 뿐임을 잘 알고 공산당에 입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직접 몸을 던져 반일 유격 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비록 공부는 못했을 망정 나라 없는 설음과 압박과 착취 받는 인민의 고초를 누구 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였다.

유격대에 참가하자 그는 누구 보다도 용감히 싸웠다. 그후 그는 일제와의 가렬한 싸움에서 여러번 적의 총칼에 상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적의 포위에 들어 죽을 번한 일도 한 두 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만금의 아버지가 일제와 싸우고 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 김 옥순 (1906년생)은 두 어린 딸을 데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 왔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정 살림살이란 말할 수 없이 곤난하였다. 더우기 유격대에 들어간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일제 원쑤들은 하루도 쉴사이 없이 그들 모녀를 괴롭혔다. 그런 나머지 1933년에는 집과 량식마저 모조리 불살라 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때 간신히 놈들 손에서 빠져나와 세 모녀의 목숨을 건지게된 만금의 어머니는 그 후에도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만금의 어머니는 집과 가족을 버리고 나간 남편을 조곰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는 원쑤와 싸우는 남편이 남겨두고 간 두 어린 딸을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는 것을 둘도 없는 자랑과 락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놈들 손에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때 만금의 나이는 겨우 열 한 살이였다. 두 부모님을 잃어버린 만금이는 고아가 되였다.

참으로 만금이가 걸어 온 길 그것은 고난과 슬픔에 뒤엉킨 가시 밭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만금이로 하여금 혁명의 길로 줄다름치게 하였으며 싸움마다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우게 하였던 것이다.

어린 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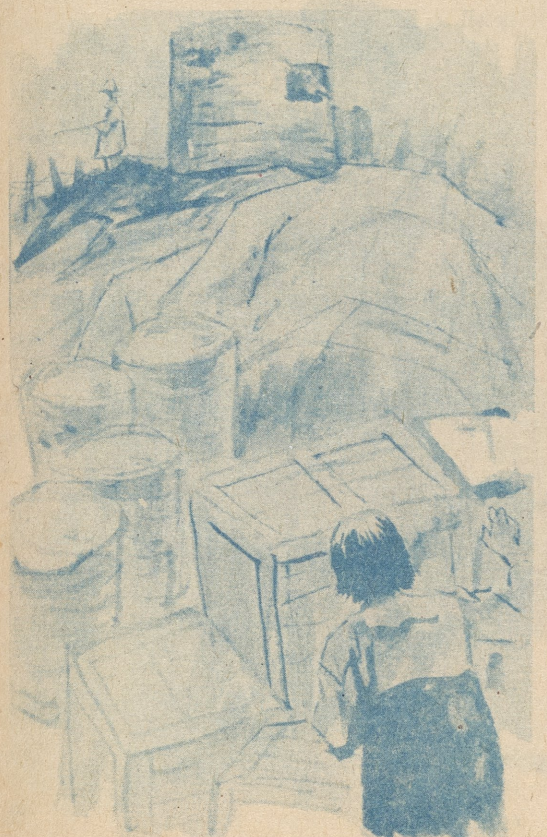
일찌기 만금이는 여덟살 때 아동단원이 되였고 아홉살 때는 아동단 분대장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항일 투쟁에 나섰다.

만금이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동단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히 우리 글과 우리 말을 쓰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말은 물론 쉬운 로어까지도 능히 통할 수가 있었다.

만금이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에게는 본래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혁명의 피가 가슴 속에 용솟음치고 있었고 벌써 나라를 사랑할 줄 알며 원쑤를 미워할 줄 아는 힘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만금이여서 그는 아홉살 때부터 적 통치 구역에서 반일 유격대의 통신 련락 임무를 맡을 수가 있었다.

이때 일제놈들은 물샐틈 없는 경계망을 늘이고 눈에 쌍심지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제아무리 경계를 심히 한다해도 어린 아이인 만금이에게까지는 미처 눈을 돌리지 못하였다. 만금이는 몸은 다부지게 건강했지만 키는 제 나이 보다도 더 작아서 누가 보든지 철없는 아이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제놈들에게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만금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였다.

어린 만금은 이런 기회를 타서 조직의 명령대로 유격대와 유격대 사이에 통신 련락을 할 수 있었고 일제놈들의 병영에까지 숨어 들어가서 놈들의 수효가 얼마

나 되며 어떤 무기를 쓰고 있으며 언제 어데로 이동 혹은 작전하러 가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었다. 령리한 만금은 때로는 재롱을 부려가며 놈들을 속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였다. 놈들에게 발각만되면 당장 죽는 판이다. 그러나 대담하고 용감한 만금이는 그런 어려운 공작을 늘 재치있게 해치웠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 오던 만금이는 마침내 놈들의 주목을 받게 되였다.

연길현 왕우구라는 곳에서 이런 공작을 해 오던 만금이는 1931년 10월 경에 놈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더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였다.

그는 곧 자리를 옮기여 《구산》이라는 곳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만금은 이곳에 몸을 피해 있으면서도 잠시도 가만이 숨어만 있지 않았다.

더구나 이곳은 좁은 고장인데다 왜놈들의 경계가 더 심하였고 그 앞잡이놈들이 날뛰고 있는 그런 곳이였다. 그렇지만 만금은 이러한 모든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맡은 공작을 계속하였다.

그러던중 마침내 만금은 그해 (1931년) 겨울 일제 경찰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만금이를 체포한 일제놈들은 그를 간도성 연길현 국자가라는 고장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그를 류치장에다 가두어 놓고 매일 같이 끌어 내다가는 갖은 고문을 시작하는 것이였다. 놈들은 그의 가슴에 총을 겨냥 하고 목에 칼을 대고 죽인다고 위협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모진 매질을 해가며 묻는 것이였다.

《유격대가 어데 있느냐?》

《공산당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가 어디냐?》

그러나 어린 만금이는 어떤 매질과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직 《나는 몰라요!》하는 이 한 마디만 되풀이 할 뿐이였다. 그럴 수록 일제 경찰놈들은 더욱 약이 올라 매질을 더 해가며 금방 죽일 듯이 덤비였다.

이때는 바로 만주를 강점한 왜적들이 조선 사람들을 수 없이 많이 죽이던 때였다. 그 리유는 공산당원이니까 죽인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일제놈들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피바다를 이루고 시체로 더미를 쌓았다. 이때에 유격대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가기만 했다.

놈들은 무고한 농민들을 죽이고도 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밤중에 달려 들어 자는 집에다 불을 질러 온 가족을 불태워 죽이고도 공산주의자이니까 죽인다고 하였다.

지어는 지팽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오는 80로인을 붙잡고도 공산당원이라고 총살하고 때로는 어머니 품 속에서 젖먹는 아이를 빼앗아서 권총으로 쏘아 죽이면서도 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때에 왜놈들 손에 붙잡힌 만금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놈들은 모진 매질에도 굴하지 않는 만금에게 할 수 없이 방법을 바꾸어 달래어 보기도 했다. 놈들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맛있는 과자와 음식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권하며 아는대로 대기만 하면 곧 집으로 돌려 보내 준다고 얼리였다.

며칠씩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을대로 굶은 만금이다. 그는 금시 배가 고파 쓸어질 지경이였다. 그 과자를 볼때 달려들어 빼앗고 싶으리만치 창자가 뒤집혔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 놈들의 간교한 수단인 것을 알고 있는 만금이는 놈들이 아무리 얼리고 달래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는 얄미운 생각에 더욱 이를 악물었고 그냥 도리머리를 하였을 뿐이였다.

《나는 아무 것도 몰라요》

놈들은 이처럼 어린 만금이를 매질도 해보고 얼려도 보았지만 끝끝내 모른다고 머리를 흔드는 만금이라 더는 어쩔 수가 없어 놓아줄 수 밖에 없었다.

십여일 만에야 경찰서에서 놓여 나온 만금이는 생전 처음으로 큰 거리를 구경할 수 있었다. 온 거리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배는 고프고 몸은 떨려 금시 쓸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원쑤의 손아귀에서 요행히 빠져나온 기쁨과 또 앞으로 싸울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인 것을 다행히 여기면서 만금은 눈내리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하였다.

만금의 집은 거기서부터 험한 산'골길을 백여리나 걸어야 하는 그런 먼 곳이였다.

칼날 같은 매서운 바람은 살을 어일 듯이 불어쳤고 눈보라는 앞길을 막았다. 그런데다 십여일 동안 겪은 모진 매에 온 몸은 쑤시고 저려서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금이는 입술을 악물고 집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걸었다.

지나가는 길가엔 동리도 많았다.

동리를 지날때마다 두터운 옷에 폭신한 털모자를 쓴 제또래의 아이들이 다 찢어지고 해진 옷을 입고 떨고가는 만금이를 보고 비웃고 놀려댔다.

그럴때마다 어린 만금이의 가슴은 분한 생각에 설레였고 이가 갈리였다.

만금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흥! 너희들은 원쑤 왜놈에게 빌붙어 개질하는 애비덕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누나! 개자식들! 나는 비록 이렇게 헐벗고 굶주려도 뻐젓한 사람이다. 원쑤놈들과 개질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람대접 안해도 나는 원쑤를 미워 할줄 알고 싸울 줄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슴 속으로 부르짖는 만금이는 유격대로 나가서 싸우시는 아버지의 용감한 모습이 눈에 환히 보였고 그리고 어머니에게서와 아동단에서 배우고 듣던 말이 다시금 귀에 쟁쟁히 울려 오는 듯 하였다.

—왜놈과 또 왜놈의 앞잡이가 되여 동포를 압박하고 못살게 구는 놈들은 모두 우리의 원쑤이다. 그놈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도 살지 못하고 낯설은 이 땅에 왔고 또 이 땅에 와서도 놈들의 천대를 받지 않는가! 그 원쑤놈들을 쳐부셔야 한다. 죽고 또 죽더라도 원쑤를 갚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번에 돌아가서는 맡은 공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시는 놈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유격대 아저씨들의 일을 더 열심히 도와 주자!—

이런 생각을 골돌히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걷는 바람에 백여리 길을 그리 추운줄도 모르고 그리운 동리에 다달았다.

만금이 동리 어구에 들어섰을 때 자기를 사랑하여 주던 복실 할머니를 만났다.

《아이 이게 누구냐! 만금이가 아니냐!》

복실 할머니는 정신 잃은 사람처럼 허둥지둥 만금이께로 달려오기가 바쁘게 그를 끌어안고 울기부터 하였다.

그러자 동리 어른들도 달려 나왔다.

《아이구 용하게두 살아 왔구나! 어린 것이 오죽이나 고생했겠니!》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만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언 몸을 어루만져 주었다.

같은 또래인 동무들도 달려 왔다.

《만금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의 어머니는 밤낮 울기만 했단다》하면서 손을 잡으며 반가워 하였다.

동리 사람들은 마치 만금이 무슨 큰 일이나 하고 돌아온 사람 같이 그를 둘러싸고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로 들어선 만금이는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눈 앞에는 참혹하고 처량한 정경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은 바로 사흘전에 또 놈들에게 《로벌》을 당하였던 것이다. 불탄집이 몇 개 또 늘었다. 동리 많은 사람들이 놈들 총창에 희생되였다. 이 통에 복실 할머니는 손주 하나를 잃었다.

만금이네 집도 말이 아니였다.

지붕은 불타고 문짝은 부서져 눈보라도 막지 못할 지경이였다.

그 속에서 떨고 있는 어머니 그의 품속에 잠자고 있는 세살난 동생을 만났을 때 만금은 한 십년을 헤여졌다가 만나는 그런 억하고 반가운 생각으로 말도 미처 못하고 울기부터 하였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만금이는 아니였다.

그에게는 그전 날의 생활이 다시 시작

되였다.

십 여일 동안 놈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무서운 복쑤의 불'길로 변하여 졌다.

그는 아침에 집을 나와서는 밤 늦도록까지 가기 말은 공작을 계속하였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통신 련락을 다니면서도 만금은 즐겁기만 하였다.

동생의 죽음

함박눈 내리는 어느 날 새벽이였다.

《땅!》

죽은 듯이 잠든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총성이 들려 왔다. 그러자 이 곳 저 곳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요란히 들려 왔다. 금시 밖에는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찌르며 타 올랐다.

왜놈들이 또 습격해 온 것이다.

동리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뒤'산으로 피난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만금이의 어머니는 아침끼니를 마련하려 나가고 집에는 없었던 때 였다.

동생을 가슴에 끼고 잠자고 있던 만금은 점점 가까워 오는 총소리에 그냥 어머니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급히 동생을 업고 집을 뛰여 나와 뒤'산으로 달음박질 치기 시작하였다.

어느 사이엔가 왜놈들은 벌써 동리로 쳐 들어 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가끔 앞을 다투어 달아 났다. 그러나 세살난 동생을 등에 업은 어린 만금이는 그들 처럼 빨리 도망칠 수는 없었다. 더우기 띄개를 단단히 졸라맬 사이가 없었음으로 등에 업힌 아이는 자꾸만 흘러 내렸다. 만금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좀 고쳐 업혀 달라고 소리쳤으나 총알이 비'발치듯 날아 드는 통에 저마다 다급해져서 그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뿔뿔이 달아났다.

앞선 사람은 벌써 솔밭 속으로 기어들었고 방금 등'뒤로는 왜놈들이 다급히 쫓아 왔다.

놈들의 총알은 연방 귀'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만금이는 정신 없이 골짜기로 달려 갔다. 그러나 골짜기에 쌓인 눈은 무릎을 넘어 좀체로 뛸 수가 없었다.

등에 업힌 동생은 흘러내려 더욱 무겁게 매여 달렸다. (다음호에 계속)

분단은 앞으로!

—함북 화대 제1 중학교 2분단에서—

글 신 진균　　　　그림 홍 관순

공부가 끝난 2분단 교실에서는 벽보 주필 리 춘섭 동무를 중심으로한 몇몇 동무들이 분단 벽보 《전진》특집호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붉은 바탕에 《모범》이라고 새긴 순회 모범 기'발 모형을 복판에 그려 넣은 벽보 특집호에는 분단 동무들의 열성에 의하여 세 차례나 련거퍼 학교내 순회 모범 기'발을 받게된 가지가지 자랑들과 훌륭한 결의들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그 벽보에 담긴 내용들에 흥미를 느끼고 그들이 해온 일들에 대하여 묻게 되였다.

그들은 지난 2월 학교 시험 포전 퇴비를 마련하는 일에서와 토끼 관리 및 증식을 위한 경쟁에서, 그리고 춘기 위생 월간을 통하여 학급내 위생 문화와 사회적 유익한 일들을 보다 훌륭히 해 나가기 위한 경쟁들에서 계속 모범 기'발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분단 사업을 훌륭히 꾸려 나가게된 것은 지난해 10월 청소년들 속에서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배양할데 대한 민청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 결정을 대, 분단, 반들에서 토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2분단은 학교에서 가장 말썽 많은 분단이였다.

분단은 학습과 모든 생활에서 뒤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동무들 가운데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때때로 학교에 나오다가도 도중에서 빵소니 치거나 패를지어 약한 애들을 때리고 싸움질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 나군하였다.

그럴 때마다 학교 대 위원회는 그들을 불러다 잘못을 고치도록 친절히 충고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더우기 리 춘섭이와 최 일란 두 동무들의 말썽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이따금 공부하기가 싫으면 조합에서 방목하는 양 떼들이 있는 산에 가 하루 종일 딩굴다 오기도 했고 며칠씩 강'가에 나가 고기 잡이로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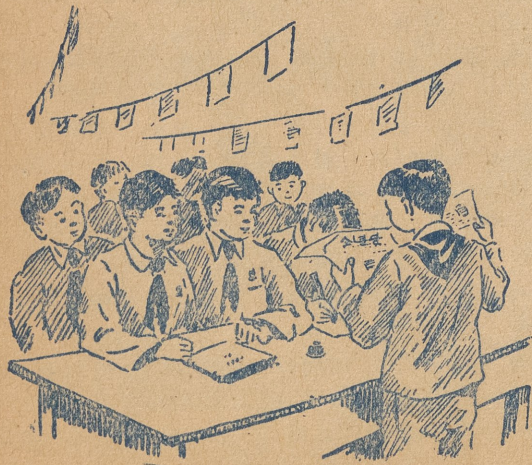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춘섭이는 조합 논갈이를 하러 온 뜨락또르에서 기름을 훔쳐 내려다가 발각되여 망신을 당한 일까지 있었다.

춘섭이가 기름을 훔쳐 내다 발각된 날 분단 동무들은 모두 격분하여 모임을 열고 춘섭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이 분단과 학교의 이름을 더럽힌 행동이라고 하면서 용서 못할 일이라고들 떠들었다.

이렇게 되자 춘섭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대신 오히려 분단 동무들이 자기를 싫어하며 멀리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몹시 분해하였다. 그는 분을 참다 못하여 그만 문을 차고 뛰여 나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임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그후 춘섭이는 오래'동안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단에는 날이 갈수록 말썽만이 늘어 갔고 학업 성적은 더욱 더 뒤떨어져 갔다. 그러나 분단은 동무들의 생활을 바로 잡아 주고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신통한 일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대 위원회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 밑에 열성자 모임을 가지고 2분단 동무들의 생활을 더 자세히 의논하게 되였다.

이날 모임에서 지도원 선생님은 2분단 동무들의 생활에서 말썽이 많고 성적이 점점 뒤떨어지는 주요한 원인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씀하였다.

그것은 즉 그들이 학교 생활에 흥미를 갖도록 대 및 분단이 항상 그들을 따뜻이 대하며 잘못을 친절히 타일러 주면서 제때에 고치도록 도와 나가지 못한 데 있다고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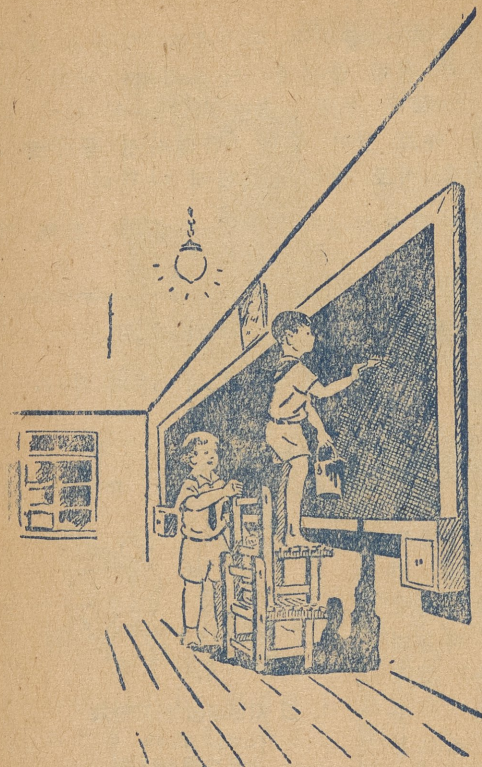
사실 지난날 대 및 분단은 동무들의 잘못을 끄집어 내여 비판하는데만 그치고 그가 잘못을 고치도록 도와 주는 일은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비판 받은 동무들은 생활에서 위축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춘섭이와 같이 가로 달아나는 동무들까지 나타나게 되였던 것이다.

그후 분단에서는 이러한 페단들을 없애고 분단 동무들끼리 서로 가까이 지내며 서로 일을 도와 가면서 잘못은 제때에 타일러 고쳐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반 생활을 우선 옳게 꾸려 나가는데 힘쓰게 되였다.

분단에서는 반 동무들이 저녁마다 한곳에 모여 같이 공부도 하며 신문 잡지도 읽으면서 그날 한 일들을 서로 총화해 가도록 하였다.

이런 반 생활은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동무들은 반 생활을 통하여 서로 더욱 친근해져 갔고 차차 동무들의 잘못을 친절히 타일러 주기 시작하였다.

특히 말썽 많던 춘섭이네 반에서도 분단 위원장 김 창학 동무와 대위원 신 동선 동무들이 춘섭이와 더욱 가까이 하면서 진심으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고 뒤떨어진 공부도 도와 주면서 그의 생활을 바로잡아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민청, 소년단 련합 모임이 진행되였다.

이날 모임에서 많은 동무들은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사는 행복감을 이야기 하면서 지난날 생활에 있었던 그릇된 행동들을 서로 비판하고 앞날의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소년단원의 의무를 훌륭히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후 학교에서는 계속 각 분단 별로 민청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 결정 내용을 한 조항씩 해설 침투하면서 분단 동무들에게서 나타난 그릇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서 2분단은 무엇보다도 먼저 춘섭이와 일란이, 그리고 몇몇 동무들의 거치른 생활을 바로잡아 주며 그들이 분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분단을 화목한 집단으로 꾸려 가기에 힘써 나갔다.

한편 분단은 때때로 지도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한 홉의 미시'가루》 《한 목음의 물》 등의 제목으로 이야기 모임을 조직하고 항일 유격대원들이 자기의 동지를 어떻게 사랑하였으며 또 그의 동지적 사랑이 얼마나 큰 단결을 가져 오게 하였는가를 깨닫게 하였다.

그때마다 분단 동무들은 자기의 생활에서 동무의 잘못을 본체만체 하면서 뒤에서는 시비하고 모임때면 비판하던 그릇된 행동들을 고쳐 나가며 진실로 동무를 사랑하고 도와 나갈 훌륭한 결의들을 다지군 하였다.

이렇게 되자 춘섭이와 일란이도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였고 학교와 분단을 위하여 반드시 잘못을 고쳐 나갈 것을 다짐하게 되였다.

어느날 아침이였다. 교실에 나온 동무들은 모두 새로 말끔히 먹칠 해놓은 흑판을 보고 서로 얼굴을 쳐다 보며 웅성거리였다.

누가 했을가? 그들은 처음에 서로 궁금해 하기도 하였다. 후에 알고 보니 그것은 뜻밖에 춘섭이와 일란이가 밤새껏 칠해 놓은 것이였다.

이것을 알게된 분단 동무들의 마음은 몹시 기뻤다.

그것은 비록 한 개의 흑판에 대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 그처럼 말썽 많던 춘섭이와 일란이들이 분단을 위하여 자기들의 힘을 바쳤다는 것이 기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에서는 곧 그들의 훌륭한 행동을 높이 찬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분단 벽보에 널리 소개하였다.

그제야 비로소 춘섭이와 일란이는 분단 동무들이 자기들을 진심으로 도와 주려고 애쓰며 진실로 믿어 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점점 분단 사업에 열성을 내게 되였고 당번 아닌 날에도 이

따금 학교에 일찍 나와 교실 청소와 운동장 청소들을 깨끗이 해놓군 하였다.

분단에서는 그들의 이 훌륭한 모범을 살려 학급내 청소 당번제를 학교에서 선참으로 없애고 모든 동무들이 서로 자각적으로 청소에 참가하도록 하게 되였다.

이런 때에 학교에서는 마침 시험 포전 퇴비를 마련하기 위한 각 분단별 경쟁이 조직되였다.

이 사업에서 분단은 동무들의 제의에 의하여 분단 내에서도 반별 경쟁을 조직하고 한 사람 평균 100kg의 우마분과 부식 퇴비를 모으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곧 반별 조기 청소를 실시하면서 도로와 마을 주변에 널려 있는 우마분들을 모주리 모았고 변소나 오물장 청소를 진행하고는 인분과 부식 퇴비들도 꾸준히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 분단 보다도 많은 퇴비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훌륭한 모범으로하여 학교내 순회 모범 기'발을 처음으로 받게 되였던 것이다.

그후 분단 사업은 날마다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분단 동무들의 생활에서는 동무를 믿고 서로 도우며 학교와 분단을 위하여 노력하는 훌륭한 미담들이 늘어 가게 되였다.

그들은 실습지 봄갈이를 위한 사업에서와 훌륭한 토끼사를 짓는 일에서, 그리고 학급내 위생 문화를 위한 사업들에서 계속 다른 분단의 앞장에서 일해 나가게 되였다.

더우기 그들의 자랑은 분단 동무들의 뒤떨어진 학습을 추켜 세우고 우수한 분단들을 따라 잡게된 그것이다.

분단에는 1학년 진급 시험 때까지만 하여도 최우등 생은 한명도 없었고 12명의 탁제생을 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원 57명 가운데서 2학년에 진급한 동무들은 겨우 45명 뿐이였고 그들마저 대부분은 가까스로 진급한 동무들이였다.

이리하여 분단은 동무들의 학습을 추켜세우기 위한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였다. 그들은 우선 분단 동무들의 학습 태도를 바로 잡아 주며 뒤떨어진 동무들의 학습을 서로 돕기에 힘써 나갔다.

분단에서는 《학습은 우리들의 첫째 가는 임무》, 《학습은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한다》 등의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지고 학습을 게을리 하는 동무들의 그릇된 태도들을 제때에 고쳐주면서 그들의 뒤떨어진 학습을 서로 도와 나가기 시작하였다.

1. 그 자리에선 본체만체

2. 모임 때면 비판

한편 분단은 김 두현, 리 영철 동무들과 같이 학습에 매우 뒤떨어진 동무들에 대해서는 열성자들이 직접 도와 주기로 분공하였다.

그때로부터 분단 동무들의 학습 태도는 점점 달라져 가기 시작했고 학습에 열성과 노력을 기우리기 시작하였다.

그후 그들의 성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였고 2학년 2학기에 와서는 13명의 우등 최우등생을 내게까지 되였다.

그리하여 2분단은 오늘 학습과 로동에서 그리고 분단 사업을 더 잘 꾸려 나가는데서 다른 분단들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

보고 싶은 언니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선생님께서 《저 먼 조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언니들의 편지를 주었을 때 대단히 기뻐 막 가슴이 뛰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소학교 5학년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조선과 같이 소년단이 있습니다. 나도 소년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에 있는 언니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조국으로 돌아 가자고 하는데 무성의한 일본 정부 때문에 아직도 돌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여났으니까 조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하루 속히 내가 가장 존경하는 김 일성 원수님의 모습을 뵈옵고 싶습니다. 나는 조선에 있는 동무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왜 일본에서 태여났고 왜 조국에서 자라 날 수 없을가… 그것은 누구의 탓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

악독한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탈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고향에서 몰아 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아직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것은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미제와 그의 압잡이 리 승만 역도들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이상 일본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차별과 멸시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방금이라도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조국의 품안으로 달려 가고 싶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정부와 그리고 인민들이 부르는 조국으로…

나는 조국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나의 모습을 자주 꿈꾸었습니다. 그 때마다 내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리며 행복감에 가득찹니다.

그렇다! 나는 한시 바삐 조국으로 가고 싶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며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훌륭한 일'군이 되여 아름답고 행복한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언니들 꼭 맹세합니다.

그러면 몸 성히 안녕히 계십시요.

《튼튼하게》

1959년 3월

시가 현 오호쯔시 젠쇼
기따사가미정 565
황 정 순 올림

—평양 제 7 고급 중학교 대에서—

권 기 준

쟁글 쟁글 내려 쪼이는 봄볕은 새움 트는 운동장 둘레의 황철 나무며 흰 벽에 유리창이 으리 으리한 교사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기운에 휩싸인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 소리, 노래 소리로 흥성 거리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운동장 한쪽 축구, 배구, 롱구 경기장들에서는 경기가 벌어 졌고 푸르러 가는 운동장 나무 밑에서는 몇 사람씩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며 시를 읊고 있었다.

이 모든 아이들의 생활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명랑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한 교실과 운동장 그리고 여기서 배우며 뛰놀고 있는 아이들의 단정한 몸차림이며 즐겁고 활기찬 얼굴들은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의 아름답고 유쾌한 생활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이 학교 대에서는 매일 처럼 참으로 유쾌하고 흥겨운 방과 후 생활을 조직 하고 있다. 이 학교를 찾으면 소년단원들은 으례히 흥겨운 분위기로 넘쳐 흐르는 구락부로 안내한다.

방과 후가 되면 구락부에는 많은 동무들이 모여 들어 제가끔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 써클에도 참가하며 오락과 유희에도 신바람을 피운다. 명숙이가 가야금을 들고 나왔다. 그는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으쓱 으쓱 해지는 《풍년가》를 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떠들썩 하던 구락부 안은 갑짜기 조용해 졌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뒤이어 많은 동무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 흥겨운 각 가지 노래들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민반 2 학년생인 영화가 피아노로 《만경대》의 노래를 탔을 때 였다, 꾀꼴새 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순이가 따라 노래를 불렀고 뒤이어 이 노래는 잘 어울린 중창으로 변하였다. 이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마음은 마치 원수님께서 어릴적 무지개 잡이 하셨다는 만경봉으로… 마음의 고향 만경대로 훨훨 날아 가는 듯 하였다.

락부를 나와 다시 도서실에 들려 보니 많은 동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을남이, 돈영이, 풍자도 이 속에 끼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두달 동안 만도 열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다른 동무들도 한달에 두세권은 꼭꼭 읽고 있다. 또 자기들의 힘으로 도서실을 운영하며 독서 모임, 감상 모임도 가지고 있다. 잘 조직된 독서 모임과 감상 모임은 이곳 동무들을 공산주의적 품성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황홀한 미래에로 줄달음 치게 하여 주고 있다. 한때 집단 규률을 잘 지키지 않던 원덕이, 박 일이는 한 설야 선생님이 쓰신《력사》를 읽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독서 감상 모임 때 원덕이는 《나도 아동 단원들 처럼 학습에 열성을 내며 규률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한 후 지금은 모범 소년단원까지 되였다.

이렇듯 이들은 책을 통하여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 투사들의 불굴의 투지와 열렬한 애국심과 슬기로운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배우고 있다. 을남이는 이렇게 말했다.

《독서는 산 지식을 주는 좋은 학습이였습니다. 나는 고리끼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식의 원천인 책〉을 무척 사랑합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즐거운 일과의 하나 입니다.》

이것은 을남이 혼자 말이 아니다. 책 읽기에 습관된 이곳 모든 동무들의 말이기도 하다.

나는 이들의 흥미 있고 다양한 생활에 끌려 온실로 갔다.

온실에는 장미꽃, 다리야, 국화, 라이락, 무궁화, 수선화들이 활짝 피여 있었고 선인장, 빠나나, 귤, 파초, 고무 나무들이 거인 처럼 서 있다. 이 많은 가지가지의 꽃과 풀, 나무들은 모두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정성껏 가꾸고 있다. 그들은 학습할 때나 놀 때나 심지어 일할 때에도 향기로운 꽃 냄새 속에서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것은 이곳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한층 아름답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고상하게 키워 주고 있다.

이 학교 대의 아름다운 생활과 자랑은 많고 많다. 누구나 다 시를 지으며 음악을 감상할줄 알며 누구나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릴줄 안다.

박 효재가 지은 《우리 학교의 자랑》 이라는 가요는 이 학교에서 모두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유섭이, 동근이, 원성이는 미술가들께 못지 않는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

녀자애들은 수 놓이와 뜨게질을 즐기고 맵씨 있는 수공품도 만들고 있다.

이 처럼 흥겹고 명랑한 생활은 소년단원들의 품성을 더욱 참되고 고상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아니라 학습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지금 모두 우등, 최우등으로 공부하고 있다. 대 위원회는 이런 훌륭한 자랑을 쌓기 까지 많은 일을 하였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는 어린이》《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한다》등등의 제목으로 벽신문 지상 토론도 하고 분단 별 경연 대회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대 위원회는 누구나 다 시를 읊고 음악을 감상 할 줄 알며 한가지 이상 악기를 다루도록 지도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조직하면서 항상 매개 소년단원들이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원쑤를 증오하는 마음을 옳게 갖도록 이끌어 갔다.

위원장 김 연 동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들은 생활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이 보일 때는 누구나 참을 수 없게되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언제나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학교를 깨끗이 하며 자기 일을 찾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생활과 품성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이 학교는 참으로 아름답고 유쾌한 기분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소년단원들의 마음에도, 얼굴에도, 생활에도, 학습에도…

그리고 그 어떤 모든 곳에서도…

글 김 철　　　　그림 리 서 우

언젠가 한 번 성진 제강소 제강 직장 용해공인 김 동혁 동무는 나에게 자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 ×

내가 부모를 따라 고향을 떠난 것은 네 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농사 지을 한 뙈기 땅도 없어 늘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는 가족을 거느리고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사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은 것도 기아와 빈궁 뿐이였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며칠씩 집에 들어 오지 않았는데 어느날 밤 일본 헌병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장정들을 붙잡아 가는 것을 보고서야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가 그 사이 무슨 일을 하고 있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뒤'집지운채 웃동을 벗기고 총탁으로 마구 때리던 왜놈들의 가증스런 모양을 나는 평생 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결코 왜놈들이 말하는 《비적》이나 《마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가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날 밤 마을에서 붙잡혀 간 장정들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왜놈들의 추격을 피해 강물을 따라 발자욱을 물 속에 감추며 장백산으로 깊이 들어 가려 했는데 불행하게도 나의 아버지만은 끝내 왜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마을로 끌어 왔습니다. 우리 집은 놈들이 지른 불에 몽땅 타버렸습니다.

《비적의 녀편네는 나오라》고 구장이 웨쳤습니다. 나와 나의 어머니는 그 순간 뒤'잔등에 일본 총창이 꽂히였으나 꿋꿋하게 뻗치고 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마폭을 찢어 붉은 피 랑자한 아버지의 잔등을 싸주려고 달려 갔으나 왜놈들은 어머니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 찼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배 속에 애기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감옥으로 갔지요…

친척도 없는 만주 광야에 의지할 기둥도 없이 남은 우리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나의 어린 어깨에는 그 때부터 무거운 짐이 질머지워졌습니다. 나는 우선 어머니에게 죽물이라도 대접하려고 부근에 있는 탄광을 찾아 갔습니다.

그 해에 아버지는 출옥했는데 바깥 세상에 나오자마자 피를 토하고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의 어린 가슴에 민족적 울분과 일제에 대한 반항의 씨를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나는 탄광을 경영하는 일본놈 자본가의 아이들을 때려 줬는데 그것 때문에 탄광에서 쫓겨나 조선 사람이 경영하는 탄광으로 옮겨 갔으나 거기서도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강냉이 가루 한 말과 통강냉이 한 말을 받고 나는 탄광 버력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 버력차 밑에 젖은 몸을 쪼쿠리고 앉아 이 일 저 일 생각을 더듬을 때면 웬 일인지 슬퍼져서 나는 남몰래 울기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버력'더미에서 일한 나는 왜놈 감독을 찾아 가서 갱내 로동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갱내에는 나를 귀여워 해 주는 늙은이들과 아저씨 형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갱내에서 깐드레불을 들고 다니며 화약고에서 화약과 심지를 타다가 탄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곧 탄부들과 친했지요. 나는 그전처럼 혼자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이 나를 돌봐주고 기운을 돋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탄부들은 때때로 필요 이상의 화약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때마다 그것을 순순하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이들은 나에게 떡을 사주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날 밤이나 그 이튿날 밤이면 시가지에서 굉장한 폭발 사건이 있었답니다. 물론 왜놈 군대들도 죽고 창고도 불타군 했지요. 나는 그러한 폭발을 누구들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도 탄부들과 꼭 같이 왜놈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늦은 밤에 주인의 심부름 갔다가 일본 경찰서 세빠트에게 되게 물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약도 안 발라주면서 《못난 자식이, 개보다 못하니 개한테 물리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 품에 쓰러져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의 상처에 된장을 붙여 주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조국을 빼앗긴 조선 인민의 생활은 어데로 가나 이러했습니다. 고국 산천이 그리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같이 고생해 줄 사람이라도 많으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1942년 우리는 조선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철들어 처음으로 조국 땅을 디뎌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고국—일본 놈들이 주인 행세하는 고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갑산에 보내고 삼촌을 의지하여 성진(지금의 김책시)에 남은 나는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고 삼촌집 형편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판이라 하는 수 없이 김 학수란 사람의 집에 소먹이로 들어 갔습니다.

만주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천대를 받아도 어머니가 끓여주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처음 당하는 남의 집 머슴살이… 조곰만 일을 서툴게 하여도 욱박지르고 때리고 하는 주인의 행패에 나는 끝끝내 참지 못하고 그 집에서 뛰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에익! 할 일이 없어 남의 종살이를 할가… 나두 뻐젓이 취직을 해서 밥벌이를 해 보자)

나는 목재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나이가 어리다고 심부름'군으로 밖에 써주지 않더군요, 며칠 일하다 말고 왜놈 십장과 싸운 나는 그 일'자리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배는 고팠으나 주머니 속에는 동전 한푼도 없었습니다. 나는 막연한 걸음을 지향없이 옮겼습니다. 넓으나 넓은 세상에 내 몸 하나 담아 줄 품이 그렇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처없이 방랑하는 나의 눈에는 서글픈 눈물이 찰랑댔고 탈탈 마른 입술은 한 모금 물과 한 술 밥을 찾아 헤맸습니다.

《야! 넌 어째 그러구 있느냐?》 어느 날 나는 길주 시장 어구에 쪼쿠리고 앉아 졸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소고삐를 쥔 웬 령감이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말로 나의 신세를 이야기 했지요. 그랬더니 령감은 《흠— 딱한 일이구나. 그래 나하구 같이 가 볼가… 우리 집엔 아들이 없는데 응?》 하더군요. 나는 늙은이를 찬찬히 쳐다 봤지요. 그리 나쁜 령감 같지는 않았습니다.

《너 거저 이 소고삐만 잡구 소 가는 데루만 따라 가거라, 나는 잠간 한 잔 하구 갈테니…》 늙은이는 소고삐를 나에게 던져 주고 선술집으로 들어 가 버렸습니다. 소는 정말 제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고삐를 늦추어 잡고 따라 가면서 나는 나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며 실없이 웃었습니다.

(저 령감이 어째서 날 데려 가누? 혹시 또 머슴으로 부려 먹으려는게 아닐가? 에라, 그렇다면 우선 며칠 동안 배나 채운 다음 도망쳐 버리지. 그런데 날 아들로 삼겠다구, 흥 나의 아버지는 따루 있어, 비록 돌아 갔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지…) 내 눈 앞에는 또 다시 잔등에 총창이 꽂혔는데도 꿋꿋하게 뻗치고 섰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치(동혁아!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온다!)하고 말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소는 탑하를 지나 송동골 안으로 접어듭니다. 과수원 속에 팔각 기와집이 덩실하게 나타나는데 소는 거침없이 그 집 마당에 들어 가질 않겠습니까 그러자 집 안에서 내 나이 또래의 소녀가 쪼루루 달려나와 외양'간 문을 열구선 대문'간에 어이없이 서 있는 거지 같은 나를 호기심을 가지고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너는 누구냐?》고 묻더군요

《너집 소를 가지고 왔다》

《그래… 어디서 오니?》

가는 곳 마다 꽃밭으로 덮히게 하자!

공장이 바로 성진 제강소였습니다.

한 번은 늦
가 일본 경찰
니다. 그런데
서 《못난 자스
물리지》하고
다. 나는 그날
엉 울었습니다
장을 붙여 주

조국을 빼앗
더로 가나 이
리웠습니다.
생해 줄 사람
했습니다. 19
습니다. 나는
떠며 보는 것
일본 놈들이
에게 기쁨을
동생을 갑산이
성진(지금의
가고 싶었으나
도 겨우 입에
없이 김 학수
어 갔습니다.

만주에 있을
아도 어머니가
는데 처음 당
곰만 일을 서
리고 하는 주
지 못하고 그
니다.

(에익! 할
할가… 나두
를 해 보자)

나는 목재스
서도 나이가
에 써주지 않
놈 십장과 싸
습니다.

이제는 어디
으나 주머니
니다. 나는 먹
습니다. 넓으
담아 줄 품이 그렇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처없이 방랑하는 나의 눈에는 서글픈

《그래… 어디서 오니?》

꽃밭을 이렇게 만들어 놉시다

《물으겠다》

《아이 넌 집두 없니?》

《없다 내겐 아무 것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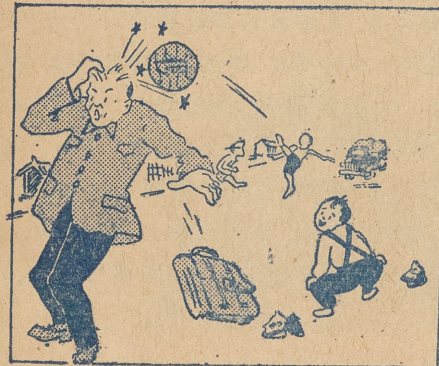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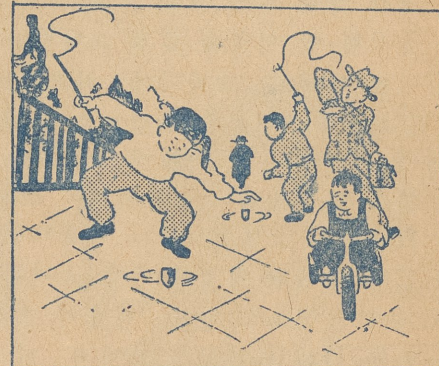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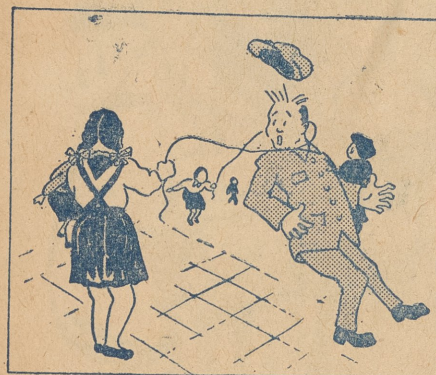
소녀는 한참이나 끔쩍도 않고 섰더니 홱 돌아서서 집으로 달려 들어가 제 어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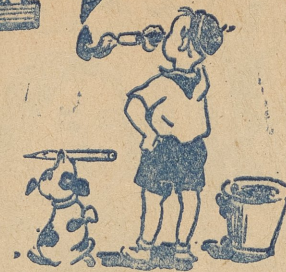
몇 분 후에 나는 크다란 식기에 담긴 흰 쌀밥을 게걸스럽게 퍼 먹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뒤에 숨어 눈이 뚱구래서 내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폭신한 솜 이불을 덮고 그날밤을 자면서(이게 어찌된 호박이야) 하고 나는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으로 오래'동안 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류랑아는 뜻하지 않은 행운아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 내외의 친절한 대접과 죽순(소녀의 이름)이와의 우정으로 하여 마음이 흐뭇했으나 차차 나는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집의 《데릴 사위》자 머슴이였던 것입니다. 나는 어쩐지 마음이 떳떳하지 못했고 동리 소년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비록 나보다 헐벗고 배를 곯지만 그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였고 또 아버지생각을 하였습니다. 탄광에서 처음 일하면서 사귀였던 탄부 아저씨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순이는 퍽 귀엽고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내 손발을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나는 어느날 죽순에게만 말하고 몰래 그 집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멀지 않는 쌍포에는 큰 공장이 있는데 인부를 받아 들인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공장이 바로 성진 제강소였습니다.

내가 쌍포에 도착한 바로 이튿날 나는 우리 나라가 해방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길'바닥에 못박힌듯 서서 이 황홀한 소식에 한참동안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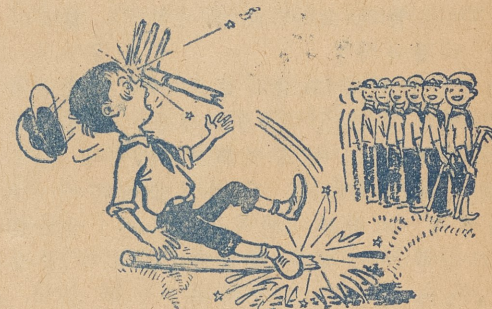
《왜놈이 망했다!》이 말과 함께 나의 서럽고 어려운 소년 시절도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때 열 다섯살이였습니다. 나는 그후 물론 공부도 했고 떳떳한 공화국의 로동자가되였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의 가지가지 서럽던 일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오늘의 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나와 같은 서러움을 다시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나는 더욱 많은 강철을 녹여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생각 하나요?

그림 림 영 환
백 찬 도

거리에서 공차는 아이를
힘것 내찬 풋뽈이
길가던 아저씨 머리에 뻥!
아차차 큰 일 났네
이 일을 어쩌나!

동무들께 물어 봅니다.
팽이는 어디서 치나?
사람들 오가는 길 바닥에서
팽이 치다 어른네 뺨 쳤으니
이건 이건 참으로
옳지 못한 일.

동무들께 물어 봅니다,
줄넘기에 신이난 옥이와 금이
길가는 아저씨 목에
'줄 걸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나 어찌하나.

분단 모임에선 어머니의 일'손
잘 돕자고
선참으로 토론한 길남이,
그런데 그런데 길 거리에서
무거운 짐 이고 든 어머니를 만났어도
난 몰라요 혼자가는 길남이
이건 이건 말과 행동 반대되는 일—

소년단 언니 오빠들이
유치원 마당에 와서
그네랑 미끄름'대랑 가로 채서 노니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한담?.

생산 실습 마치고
아이들은 모두 정렬했는 데
일하기 싫어
외딴 곳에가 놀던 순덕이

동무들은 열심히 책을 읽는데
흙뿌리며 돌맹이질 하며
좋지 못한 장난하니
책 읽던 기분도 흐려지네.

—엑히 늦었구나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랴
괭이 자루로 다리 놓고 콱 디디였더니
부러진 괭이는 떼꺽
덕순이 이마를 때렸네.

59명의 "손녀들"

—평양 44 중학교 13 분단에서—

글 허정룡　　그림 현재덕 림영환

얼마전 교장 선생님 앞으로 초소에서 한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아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의 편지 일가요?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동들의 교육 교양 사업에 얼마나 수고 하십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양하신 착한 소년단원들이 저의 늙으신 량부모님을 성심으로 도와 준데 대하여 무엇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읽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깊은 감격과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 주고 있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이 어떤 착한 일들을 하였기에 초소를 지키는 용사의 가슴을 그렇게도 뜨겁게 하였을가요?

× ×

금년 설날에 있은 일입니다.

분단 위원장 최 복자, 대위원 라 영자 동무는 이른 새벽 꽃다발을 안고 인민 군대 후방 가족인 김 태욱 할아버지네 집에 찾아 갔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세배를 받으세요!》

《할머니 건강을 축하합니다……》

소년단원들의 정성고인 꽃다발과 선물을 받아 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은 금시에 기쁨과 감격으로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니 고맙다. 너희들이 들어오니 방안이 환히 밝아 지는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주름'살로 덮힌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우시며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이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소년단원들을 끝내 붙잡고 같이 아침을 먹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복자와 영자의 머리에는 설날 자기들을 그처럼 반가이 맞아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겨울 방학 기간이였으나 분단 지도원 선생님과 의논한 이들은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분단 위원장 최 복자 동무는 과거 항일 혁명 투사들이 어떻게 오늘의 큰 행복을 찾기 위해 피 흘려 싸웠으며 그를 굳게 지키기 위해 지난 조국 해방 전쟁시기에는 인민 군대 오빠들이 어떻게 싸웠는 가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대에 보낸 김 태욱 할아버지는 69세, 할머니는 65세의 늙은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할머니는 미제 날강도 놈들의 폭격으로 부상당해 다리가 불구로 되였습니다.

그 분들의 단 한분밖에 없는 아들은 지금 초소에서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꼭 이 로인을 존경하고 힘자라는 대로 도와 드려야 하겠습니다.》

복자 동무의 말은 동무들의 가슴을 울려 놓았습니다. 동무들은 한결 같이 그 분들을 도와 돌이자고 찬성해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13 분단의 십여 명의 열성자들은 그 길로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탄'불도 피워 드리고 집안의 먼지도 말끔히 털어 냈습니다.

그 이튿날 동무들은 풀과 종이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인민 반에서 어머니들이 할아버지네 집을 도와서 말끔히 도배한 방안에다 자기들의 손으로 그림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던 적적한 집안은 날마다 명랑한 처녀애들의 말소리 웃음소리로 흥성 거렸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도와 빨래도 해 드리고 탄도 날라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여 동 인민 반에서는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소년단원들의 손으로 살림 사리가 꾸려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성자들끼리 시작했는데 이제는 분단 전체 동무들이 너도 나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분단 전체 동무들이 한꺼번에 가서 도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단에서는 하루에 두 명씩 순번을 짜가지고 도와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이 아침 일찍부터 식사, 청소, 빨래 등 할아버지네 집 모든 살림 사리를 돌봐 드렸습니다.

13 분단 동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셨으며 그분들은 또한 소년단원들을 자기 친손녀들처럼 사랑하고 귀여워 했습니다.

두 분은 이제는 매일 같이 귀여운 소년단원들이 찾아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였습니다.

터덜터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오냐, 영자 왔느냐?》하며 문을 열었고 운동화 소리를 자박자박 내며 문을 살며시 열면 《너 춘자 인제 오니……》하고 찾아온 아이들을 제꺽 알아 마쳤습니다.

이렇듯 소년단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는 한집안 식구나 다름 없이 가까워 졌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고를 덜며 더 기쁘게 해 드릴가 하고 늘 생각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재미 나는 이야기도 해드리며 초소에 계시는 아저씨에게 편지도 써 보내고 또한 밥 짓는 법, 찬 만드는법, 탄'불 때는 법, 빨래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 제법 혼자서도 잘 하게 되였습니다.

지난 3월 초순이였습니다.

봄에 들어 오자 할아버지는 독감에 앓아 누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날로 의사를 청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극진한 간호와 의사의 치료를 받은 할아버지는 차츰 기침도 멎고 열도 낮아 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 강점 시기 치안대 놈들이 군대 나간 아들을 내 놓으라고 때린 상처가 도져서 좀처럼 자리에서 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중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단 동무들은 모두 병 문안하려 모

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할아버지를 더 잘 간호해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당번도 없어지고 제일 먼저 오는 동무가 시중을 보게 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년단원들의 이 기특한 행동에 감동되여 모여 왔습니다. 리 영신 동무의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입맛이 없어 한다고 먼 곳에서 가져온 식혜를 가져왔습니다. 그 밖의 많은 어머니 할머니들도 별다른 음식을 들고 모두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다리가 불편하므로 할아버지가 누우신 뒤부터는 소년단원 동무들이 할아버지 병시중 일체를 도맡아 보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열이 더 올랐습니다. 《애들아—내 아마 이제는 이 좋은 세상도 더 보지 못하고 죽는가 보다.

너희들과 같이 착하고 기특한 애들을 길러낸 훌륭한 분을 뵈옵고 마지막 이야기나 하고 싶으니 너희반 선생님을 꼭 모셔다 다구……》하고 부탁 했습니다.

석 화실 선생님이 달려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의 손목을 꽉 잡고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쉐다! 내 늙으막에 자식을 하나 두었다가 인민 군대에 내 보낸 후에 일찍이 손자를 보지 못한 것을 탓했더니 글쎄 선생님이 잘 가르친 착한 애들이 이젠 모두 내 친손녀가 되였지요. 난 이젠 무엇 하나 탓할게 없어졌쉐다!》하시며 할아버지는 눈물까지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이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이 동무들은 로인을 존경하고 인민 군대 후방 가족을 잘 원호하라는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할아버지네 집을 도와 나섰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후 동 인민반 어머니들의 따뜻한 보살핌,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치료와 특히는 이들 소년단원들의 극진한 간호로 할아버지의 병세는 나날이 나아 갔습니다.

× ×

인민 군대 아저씨의 편지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전체 선생님들!

초소에서 보내는 전사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이 귀엽고 착한 동생들의 지극한 정성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똑똑히 압니다.

바로 그들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더 튼튼히 초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소년단원들과 전체 후방 인민들 앞에 말하고 싶습니다.

〈방선은 철벽입니다!〉

이 말은 당의 전사 붉은 사상으로 무장한 초병의 굳은 맹세입니다.

조선 인민군 야전 우편함 제 84870호 „ㄴ"

김 석권 올림》

김 환 —20년후의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 국제 삐오네르 야영은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된 시기에 열리게 된다.

어저께는 하노이—서울행 정기 급행렬차로 중국과 월남 동무들이 왔고 뒤이여 아프리카와 동남 아세아 소년들이 《두선체》 려객선으로 인천 부두에 도착했다. 그들은 다급히 서둘면서 계속 서울로 향했다.

《조선의 기후는 참 좋구나…》하고 남방에서 온 어느 한 소년이 말하는 것이였다.

래일 7월 20일에는 쏘련을 비롯한 구라파 23 개 나라 소년들이 도착될 예정이다.

서울 제 301 중학교 대위원장인 만길이는 이번 국제 야영생의 한 사람으로 한 몫 끼우게 되였다. 그러므로 만길이는 금강산으로 떠나갈 준비에 분주히 서둘었다.

7월 20일 서울 비행장에서…

만길의 손목 시계는 정각 10 시를 가리킨다.

새벽 6시에 모쓰크바를 떠난 원자 려객기 《친선호》는 《삐유유》 소리와 함께 비행장 활주로를 따라 항공 역사쪽으로 날아 들어 왔다.

비행기의 승강구가 열리자 알락달락한 옷차림을 한 소년 소녀들이 손에 손을 흔들면서 땅으로 내려온다.

비행장은 꽃묶음을 안고 모여든 환영 군중들로서 물결쳤다.

환영곡 주악이 끝나자 소년단원들은 수만 리에서 날아 온 손님들에게 친선의 꽃다발을 안기면서 그들을 얼싸안고 무궤도 전차에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에 모여 온 1,500 명의 국제 야영생들은 제각기 취미에 따라 자동 조종 기차, 직승 비행기 기타 운수 수단으로써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금강산으로 떠나갔다.

자동 조종 기차를 타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 가면서 량 옆에 벌려지는 아름다운 자연 풍치도 구경할만 하지만 직승 비행기로써 금강산 봉우리들 우에 이르러 하늘에 멎은채 내금강과 외금강의 경치를 내려다 보는 것은 더 좋았다.

만길이는 이태리와 기타 나라 소년들과 패를 지어 자동 조종 자동차로 야영지에 떠나게 되였다.

그들이 탄 이 자동 조종 자동차는 뒤'부분이 비행기 모양인 방향타와 미끈한 꼬리가 달려 있으며 유리 같이 매끈한 자동차의 표면에는 문 손잡이도 차창도 분간할 수 없는 경쾌한 최신식 자동차였다.

자동 조종 자동차는 야영지로 향해 떠났다.

서로 말을 자유스레 나눌 수 없는 그들은 이 유쾌한 국제 야영과 려행의 공동 생활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가?

과학과 기술이 높이 발전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벌써 원만히 해결되고 있다.

만길이는 자동차에 마련했던 휴대용 《번역 기계》를 끄집어 들고 만지작거렸다.

그러자 기계의 바늘들이 한들거렸다. 감도를 조절해 놓은 것이다. 조절기를 틀어 놓자 옆에 앉았던 이태리 소년의 말이 조선말로 번역되여 나온다.

《조선 동무! 이 자동차는 참 훌륭하군요, 자동차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없을가요?》하고 이태리 소년이 만길에게 말하였다.

《경합금과 가소물 (쁠라스트마스)로써 만들어진 이 경쾌한 자동차는 며칠전에 우리 나라 덕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것이예요.

자동차 앞 부분에는 자동 조종 단추들과 계기들이 달려 있는 자동 조종판이 있을뿐이지요. 이것으로써 자동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동무들도 알리라고 믿습니다만 약 90년전에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오늘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참으로 놀랠만한 발명이지요. 예'날의 자동차는 속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있어서도 지금 것과는 비할 수 없지요.

그후 자동차 공업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자동차는 엔징이나 라지에타 등의 설비가 차체 전부의 50%를 차지하였고 사람이 탈 자리는 불과 절반 밖에 안되던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20세기 60년대부터 이러한 결함들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무척 애써 왔답니다. 오늘의 자동차는 그러한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10% 밖에 안 된답니다.》하고 만길이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였다.

이렇게 다정스레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어느듯 목적지에 당도했다.

몽고에서 온 소년은 자동차에서 내려서면서 《조선의 산천은 참말 놀랄만치 아름다워요!》 잔 봉우리들을 쳐다 보면서 혼자 말로 말하는 것이였다.

만국 기'발이 하늘 높이 휘날리는 금강산 정기장에서 국제 삐오네르 야영 개막식이 진행된다.

주석단 앞에 두 줄로 길게 정렬한 각국 소년단 라팔수들의 라팔소리와 함께 개막식이 시작되였다.

대회장에 설치된 《번역 기계》는 개회사와 각국 삐오네르들의 축하를 제꺽제꺽 정확하게 번역해 준다.

《번역 기계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을가?》하고 만길이는 생각하였다.

정말이지 《번역 기계》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 전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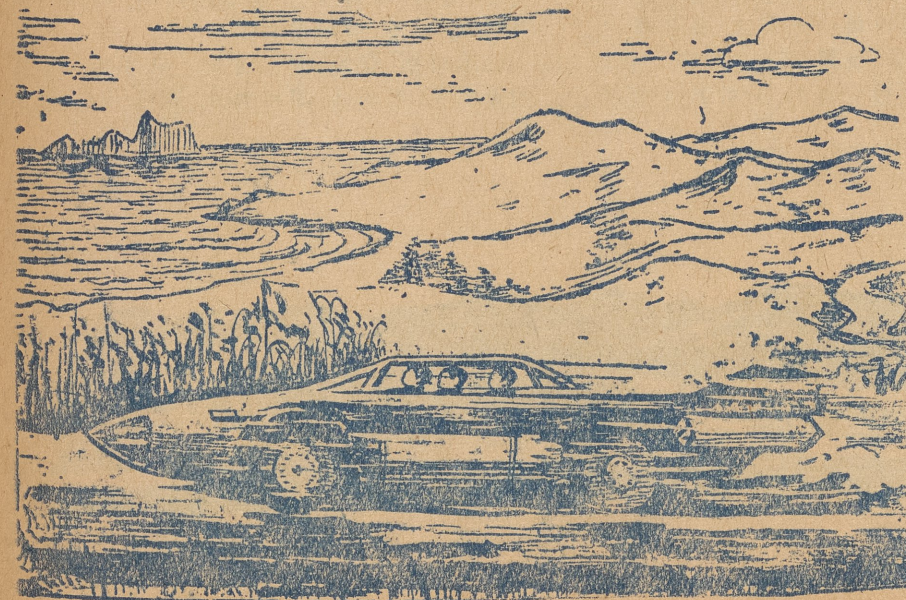
만일 오늘 우리 시대에 《번역 기계》가 없었더라면 이번 야영 생활에서는 수백명의 번역원이 우리와 같이 따라 다녀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편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번역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 야영 생활에서도 매우 편리한 것이다.

어느 날 만길이는 중국, 불란서, 월남 소년들과 같이 등산하였다. 뭉게뭉게 떠오던 검은 구름들이 잡시간에 하늘을 덮었다. 비가 퍼부었다. 만길이는 즉시 휴대했던 자동 무선 전화기로 야영소 본부를 불렀다.

《부릉부릉…》하고 탐사용 직승 비행기가 도착하였다. 계곡에서 갈'길을 찾지 못하던 소년들이 탐사용 직승 비행기로 구원되여 본부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만길이는 오늘은 인도네시야, 캄보쟈 동무들과 함께 해금강에 있는 뽀트장으로 갔다. 뽀트장에는 얼마전에 우리 나라 원산 조선소에서 만든 《물우로 나는 배》가 준비되여 있었다.

만길이는 각국 동무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쏜살 같이 물우로 날아 다니였다.

이 배는 물에 떠 다닐 때 선체를 완전히 물우에 떠오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우 빠른 것이다. 즉 이 배에는 수중 날개가 달려 있다. 배가 달릴 때 선체 밑에 달려 있는 날개는 공중을 나는 비행기 날개처럼 선체를 물우로 떠오르게 한다. 이 배를 타는 것을 야영생들은 매우 즐겨 하였다.

하루는 저녁부터 우둥'불 모임이 있었다. 우둥'불 모임에는 백발이 성성한 우리 나라의 위대한 과학자이며 과학원 원사 선생들이 초대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다.

《우리들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공상해야 합니다!

로씨야의 위대한 로케트 리론 학자인 찌올꼽스끼는 인간은 로케트를 만들어 그를 타고 우주 공간을 비행할 수 없을가 하는데 대하여 공상해 왔던 것입니다. 드디여 그의 공상은 빛나게 실현되여 오늘은 사람들이 달나라로 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얼마 전까지 그리고 그런 시기까지만 해도 공상이였었습니다. 이렇듯 과학은 공상이 없이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유기화학에 대하여 몇 마디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몇 년 지나가서 사람들은 순전히 인조 섬유로 만든 의복을 입을 것이며 인조 가죽으로 지은 구두를 신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인조 재료의 시대 — 쁠라스트마

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인류를 위해 자기의 나라에 가서 훌륭한 것들을 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학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훌륭히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소년들은 인류를 위해 저마다 위대한 과학자로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였다.

어느듯 유쾌한 야영의 나날은 흘러가 국제 삐오네르 야영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만길이는 야영 생활에 대하여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하기 위해 야영소에 설치된 텔레비죤 전화기 있는데로 갔다.

《찌링찌링…》

어머니가 곧 신호를 받았다.

만길이는 텔레비죤 전화기의 영상막에서 즐거운 기분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고 한편 어머니는 서울에서 야영지에 있는 만길의 건강한 얼굴을 보면서 반가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어머니! 저는 이번 국제 삐오네르 야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나라 삐오네르들과 다정한 동무가 되였고 특히 레닌그라드에서 온 쏘련 모범 삐오네르인 싸샤와 퍽 다정히 지내고 있어요. 난 매일을 싸샤와 같이 등산도 하며 외금강의 해수욕장 등에도 갑니다.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식물 및 광물 그리고 곤충류 등의 표본도 많이 채집했습니다.》 이렇게 만길이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였다.

한 달 동안의 유쾌한 야영은 끝났다.

오늘부터 각국 삐오네르들은 조선 소년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 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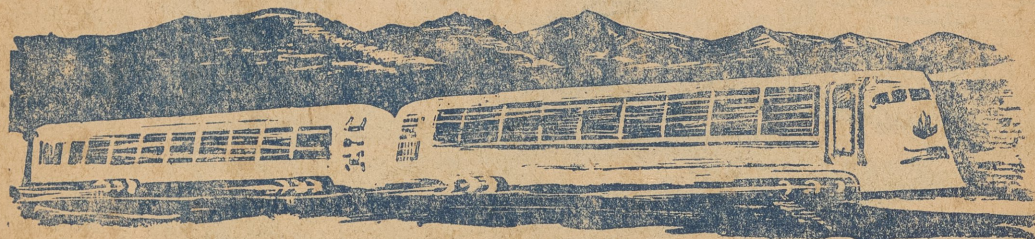
원자 려객기 《친선호》는 서울을 떠나 모쓰크바를 지나 파리에까지 날아 갈 예정이다.

만길이는 원자 려객기의 책임 비행사와 잠간 담화할 기회를 얻었다.

《비행사 아저씨! 우리는 이 원자 려객기에 대하여 알구 싶어요》하고 만길이는 비행사에게 묻는 것이였다.

《그러면 알려드립시다. 원자 비행기는 지금까지의 비행기들보다 매우 빠르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항공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분사식 비행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원자 비행기는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500 그람의 우라늄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보통 분사식 비행기가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려면 수백 톤의 휘발유가 필요함으로 무착륙 비행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대체로 리해될 것입니다》하고 비행사가 말하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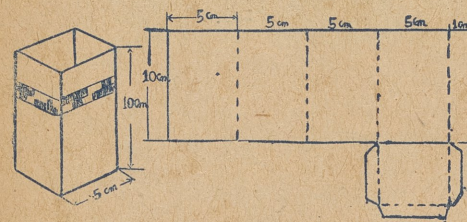
국제 삐오네르 야영에 왔던 소년들을 실은 원자 려객기는 출발점에서 떠나 북쪽에로 점점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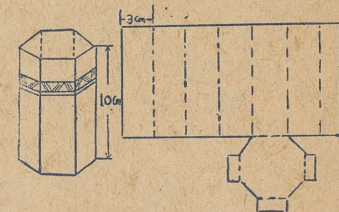
다음번의 국제 삐오네르 야영은 북극 지방에서 열리게 되리라고 한다.

우리의 공작실

조 화석

1. 필통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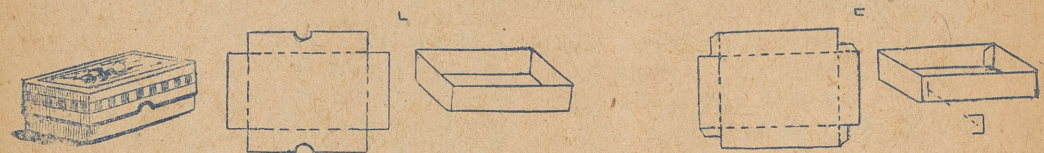
일정한 두께의 두꺼운 종이를 그림과 같은 치'수로 제도하고 실선을 끊고 점선을 꺾어서 된풀을 붙인 다음 걸면을 종이로 한번 바르고 그 우에 색종이로 무니를 오려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장식하면 아주 곱다. 다 된데다 락가나 니스를 칠하면 더욱 아름답다.

한가지만 만들어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라)

2. 종이 함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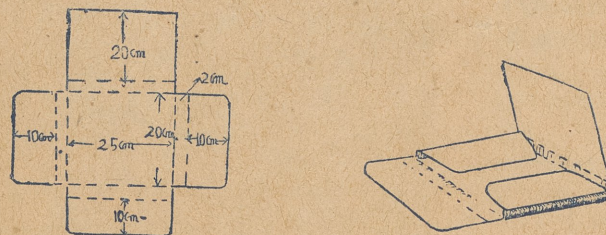
만들고 싶은 치'수로 제도하고 실선을 베고 점선을 꺾은 다음 흰종이나 색종이로 안과 밖을 곱게 바른다.

제도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ㄴ》와 《ㄷ》 방법을 많이 쓴다. 뚜껑은 약간 크게 제도하여야 덮을 수 있다.

뚜껑에 종이 장식 무니를 곱게 오려 붙여 보자.

그 외에 6각형 함을 만들어 보자!

이 함들은 연필 갑, 가위 함, 바느질 자료 함, 연필 깎아 넣는 함 여러 가지로 쓸 모 있다.

3. 종이 가방 만들기

도화지를 보관하거나 필기장을 넣어 사용하는 종이 가방을 만들자.

이 그림 치'수보다 자기 요구에 따라 크게 혹은 작게 만들기도 한다.

4. 실패와 바늘 꽂이

그림과 같이 길이 12센치메터 폭 7센치메터 정도의 두꺼운 종이를 두장 맞접을 수 있게 만들고 (꺾은 곳은 천으로 바르기도 한다) 두꺼운 천을 종이에 발라 왼편과 같이 호주머니를 만들어 실패를 꽂는다. 바늘 꽂는 곳은 아주 붙이거나 호주머니로 만든다.

빗꽂이, 증명서 케스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

5. 연필 꽂이

마분지와 천을 리용한다. 연필을 중심하여 임이의 치'수로 제도를 하고 마분지에 천을 앞뒤로 바른다. 연필 꽂는 칸은 천을 두겹 부하여 사용하거나 두꺼운 천을 사용하는 데 연필을 대고 바늘로 궤매여 만들어 간다.

그림에 표시된 제도법을 연구하여 보자. 이런 방법에 따라 가죽으로 만들기는 더 쉽다.

6. 수건 걸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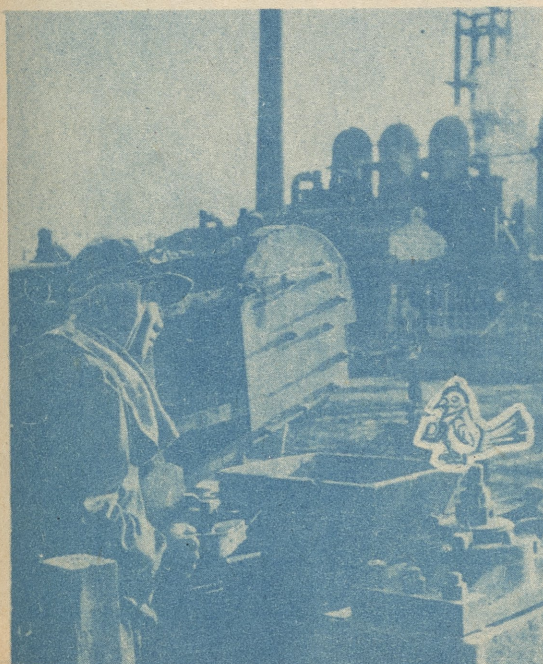
그림과 같은 부속품이 준비되면 이것을 조립한다. 세수 수건이나 손수건 정도면 재료가 적고 가느러도 일없으나 목도리나 더 무거운 것을 걸려면 좀 든든한 재료를 쓰는 것이 좋다.

7. 이동식 책꽂이

판자와 각목을 곱게 대패질하고 그림과 같이 제도를 하여 옆판자 두장, 밑판자 두장, 고정 보조대 두 토막을 끊는다. 옆판자에는 장식 부각을 하고 조립 한다.

이 일이 끝나면 밑판자 한끝에 그림과 같이 각목을 대고 못을 친 다음 이번에는 옆판자를 각목 안에 대고 그림과 같이 못을 친다. 연마사지로 다듬고 황로물을 칠하고 말린다음 마른 헌겊으로 문지른다. 이제 니스를 칠하여 광택을 내면 훌륭한 이동식 책꽂이가 된다.

동무들! 《천리마 청년 작업반》 운동이란 무엇일가요?

이것은 지난 3월 17일 김 책 제철소의 황 대연 브리가다 형님들이 일으킨 훌륭한 운동이랍니다

어떤 운동인가구요?

이 운동은 우리의 형님 누나들의 집단적 혁신 운동인데, 모두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잘 꾸려 일을 즐겁고 보람있게 하여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훌륭한 운동이랍니다.

그럼 이제 훌륭한 이 운동을 일으킨 황 대연 부리가다 형님들을 소개해 드리지요.

지금 황 대연 브리가다 형님들은 《철과 기계를 공업의 왕 자리에 올려 세워야하겠다》고 하신 수상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 눈부신 투쟁을 하고 있답니다.

나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1호 용광로로 날아 갔지요.

용광로에서는 시뻘건 쇠'물이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쇠'물을 뽑고 있는 형님이 눈에 띄웠답니다. 자그마한 키에 가슴이 쩍 벌어지고 담차게 생긴 이 형님이 바로 황 대연 형님이였지요. 나는 반가워 이 형님 어깨 우에 앉아 전체 소년단원들이 보내는 축하와 인사를 전했지요.

이 형님은 나를 몹시 반가이 맞아 주며 자랑많은 브리가다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우리 작업반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는 훌륭한 당의 붉은 전사로 되기 위하여 스스로가 자기 일을 찾아 하며 서로 도와 힘을 합해 일을 하고 있단다. 그래 지금 우리의 일은 푹

폭 자리가 나지, 말하자면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전에 없는 높은 작업 성과를 내게 되였단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앞으로 3~4년 내에 모두가 기사 기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단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이 운동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 하는가를 다시 한번 느꼈지요.

이곳 형님들은 일하면서 노트를 펼쳐 무엇인가 자주 쓰기도 하고 딴곳을 펼쳐 읽기도 했어요. 찬찬히 보니 그것은 《기술 기능 노트》였어요. 형님들은 일하면서 잘하고 못한 일들을 빠짐없이 적었다가 다음 날에 잘못은 고치고 모르는 것은 꼭 알고야 마는 습관을 길러 나가고 있었어요 황 대연 형님을 비롯한 이 브리가다 형님들은 모두 야간 전문 학교에서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고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곳 형님들은 일이 끝나면 구락부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동무들끼리 재미있는 오락도 하면서 즐겁고 보람찬 로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지난 3월 23일 김 일성 수상님께서 몸소 1호 용광로의 붉은 테프를 끊으신 후 형님들은 《천리마 청년 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고 첫 쇠'물을 뽑았지요. 형님들은 항상 이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더 힘찬 투쟁을 하고 계신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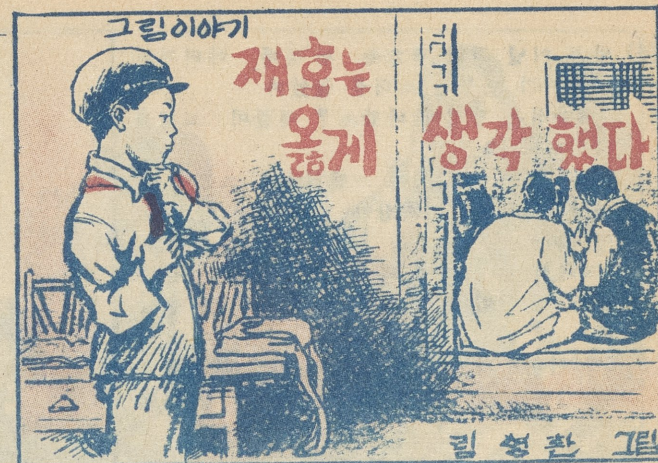
김 일성 수상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든 형님들은 더 많은 철을 사회주의 건설장에 보내기 위해 기준량을 모르는 용해공이될 것을 굳게 다짐하였지요.

형님들의 결의는 1호 용광로가 조업을 시작한지 불과 5일만에 벌써 빛나게 실천 되였답니다. 이날은 조업한 첫날 보다 322톤이나 더 많은 철을 생산하여 제철소 전체의 하루 계획을 113% 이상으로 넘쳐 실행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 형님들은 계속 빛나는 성과를 올리면서 줄기찬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아버지를 자수시킨 박 재호 동무의 이야기—

(1) 토끼 사양 관리에 누구 보다 열성인 황남 신천군 장금 인민 학교 1학년생 재호는 오늘도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 왔다. 방안에는 웬 낯 모를 사나이가 아버지와 함께 무엇인가 귀'속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재호가 들어가자 그들은 황급히 하던 말을 뚝 그치고 말았다. 아버지는 좀 어색해하며 유달리 곰살궂게 굴었다.

그리고 낯모를 사람은 억지로 돈까지 쥐여 주면서 연신 재호를 칭찬해 주었다. 그러면서 학교 토끼에 대하여 이것 저것 물었다. 재호는 큰 자랑이라도 하듯이 신나서 자세한 것까지 이야기했다.

(2) 요사이 며칠째 재호 아버지는 어째서인지 깊은 생각과 근심에 싸여 있었다. 보통 때보다 일찍 집에 돌아 오는가 하면 밤 늦도록 어딘가 자주 나가 있군하였다.

이날밤 학교 토끼사에는 검은 두 그림자가 살금살금 기여 들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토끼 목을 눌러 죽이기도 하고 무슨 가루를 토끼 사료에 섞기도 하였다.

(3) 이 일이 있은 이튿날 재호는 아침에 분만할 토끼를 돌보기 위하여 아침 일찍 토끼사로 나갔다. 재호는 깜짝 놀랐다. 간밤에 갑자기 어미 토끼 다섯 마리가 죽어 있었던 것이다. 재호는 선생님에게 달려가 보고하였다. 분단 동무들도 달려 왔다. 선생님은 죽은 토끼를 이모저모 자세히 보시더니 《자 이것을 보십시오 어떤 놈이 토끼의 목을 눌러 죽였군요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어요》라고 하였다.

(4) 바로 이날 저녁 재호는 잠'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루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정신이 나갔소? 애들의 토끼를 죽이다니!》

《낸들 죽이고 싶어 그랬겠소! 그놈이 지난날 내 죄를 미끼삼아 위협하니 할 수없이…》

《어서 당장 가서 자수해요 원 이게 무슨 짓이요》 이런 말을 들은 재호는 깜짝 놀랐다.

(아 아버지가 반혁명 분자의 마수에 걸렸구나…)하고 생각한 재호는 무서움이 덜컥 났다.

(5) 이날부터 재호는 몹시 우울해졌다. 토끼 목을 눌러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고 마치 무서운 악마 같이 보였다. 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몇번인가 아버지의 죄행을 폭로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자기가 반혁명 분자의 자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잃군하였다.

(6) 어느날 재호의 담임 선생은 분단 모임에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더 잘 할데 대해 말씀해 주었다. 《원쑤들은 악랄하고 교활합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성껏 기른 토끼 마저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놈의 반혁명 분자도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반혁명 분자들의 교활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였다. 재호는 마치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는 듯이 생각되여 더 그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집으로 막 달려 왔다.

(7) (그렇다 아버지를 자수시키자! 이 길만이 아버지를 구원하는 길이며 행복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재호는 아버지에게 원쑤는 악랄하고 교활하다는 것, 비록 지난날 잘못이 있드라도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 등을 학교에서 들은 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수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나도 다 알아》 라고 한 마디하고 시치미를 뗐다.

《나는 반혁명 분자의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렇다면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하고 재호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8) 사랑하는 아들 마저 자기를 증오하고 심지어 아들이라 부르지 말라고 한 재호의 마음을 생각할 때 재호 아버지는 가슴이 터지도록 아팠다. 그러면서 지난날 지주에게 천대받던 억울한 나날… 해방 후 기름진 땅을 분배받고 기뻐 눈물을 흘리던 일… 지난 강점 시기 놈들의 위협에 못이겨 치안대에 가담하여 따라 다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던 재호 아버지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재호 아버지는 《재호야!》하고 크게 불렀다.

(9) 《네 생각이 옳았다. 나는 여지껏 그놈에게 속아왔고 당을 속여 왔다. 이제 가서 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리 당 위원장에게 찾아 가서 지난날 고향에서 치안대에 가담하였던 일이며 이것을 미끼삼아 당시 치안대 고문으로 있던 자가 미제의 간첩이 되여 다시 찾아 와서 위협하며 토끼를 죽이게 한일을 솔직히 자백하고 앞으로 참답게 살겠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간첩은 체포되였고 아버지는 관대히 용서 받게 되였다.

로케트 려행 (9)

1) 나는 우리 나라와 바다를 사이에둔 일본 려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꾜 한 복판에 있는 《도꾜 조선 중고급 학교》에는 5각별 찬란한 공화국 기'발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붉은 넥타이를 맨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 주었어요.

2학년 학생 김 영일 동무는 《야 너를 만나니 참 기쁘다! 우리들도 이국 땅에서 다섯번째의 장학금을 받아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골고루 입고 있다. 우리들은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돕기 위해 첫번째 귀국선을 타겠다!》하고 자기들의 결의를 다짐하였어요.

2) 나는 그길로 재일 조선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에 갔습니다.

형님들은 재일 조선 동포들의 귀국을 보장하며 일본 정부의 《선별》을 반대해 투쟁하고 있었어요.

한 형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줬어요. 《지금 수많은 재일 조선 동포들은 하루속히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찬 투쟁을 하고 있다》.

책상 우에는 김 일성 원수님과 조국 동포들에게 보내는 귀국 결의를 다지는 편지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3) 시가현 오호쯔시 꾜외 고세이 초급 학교 시가 분교에 갔을 때 황 정순 동무는 《우리 식구는 모두 귀국 제 1선을 타게 신청했어, 빨리 가서 조국 동무들과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겠니!》

《걱정 말어 공화국 정부와 모든 인민들은 너희들을 하루 빨리 맞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구 벌써 공화국 정부는 너희들을 태울 배와 모든 것을 마련했다.

조국에서는 현대적 건물인 밝은 학교 넓은 운동장, 아동 공원, 도서실, 문화적인 아빠트들이 너희들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단다!》.

4) 나는 다시 도꾜에 돌아와서 우에노 공원에 갔습니다. 허줄한 양복에 짜개진 게다를 신은 한 소년이 벤취에서 졸고 있었어요.

《얘!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깜짝 놀라 깬 그 소년은 이윽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업 당하고 우린 집도 없다. 살아나갈 길이 막힌 우린 이렇게 헤매고 다닌단다. 얼마 전에는 여섯 살 난 누이 동생이 뉴욕 자본가에게 노예로 팔려 갔다!》.

나까무라란 그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져 흘렀습니다.

5) 일본 국회 의사당에 갔을 때 일본 수상 기시와 외상 후지야마는 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지야마 외상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맥아더 2세와 비밀 회담을 가지고 일 미 안전 조약을 고치시요. 오끼나와를 공동 방위하며 일본에 미국 로케트 무기를 설치하도록 하시오……》

나는 이 기시란 놈이 바로 2차 대전 때 도죠와 함께 일본과 조선 청년들을 전쟁의 죽음터로 내몰던 죄가 제일 무거운 전범자란 것을 들었습니다.

6) 나는 소문난 일본 후지산을 찾아 갔습니다. 후지 산록에서 한 농민과 만났습니다.

《……저 미국놈들이 우리 농민들의 땅을 몽땅 빼앗았다. 농토가 미국 비행장으로, 땅크 훈련장으로 그리고 로케트 기지로 됐단다. 어서 저 미군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농민들이 땅의 주인이 돼야지……》

《아저씨! 그런 때가 꼭 올거야요…》

7) 나는 세계에서 처음 미국의 원자탄을 맞아 눈 깜빡할 사이에 주민들이 몰살한 히로시마에 들렸습니다.

여기에서도 5•1절 시위가 저녁 늦게까지 벌려지고 있었지요.

《5•1절 만세!》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세계 평화 만세!》라는 삐라와 푸랑카드로 히로시마의 거리는 뒤덮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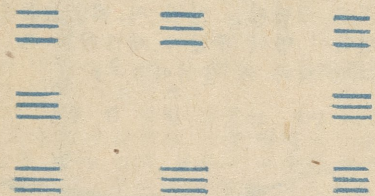
이때 시위 대렬에서는 《미국 원자 미치광이를 처단하라!》고 웨치며 한 소년이 뛰여 나왔어요, 그는 미국이 일본 비끼니 도에서 핵 시험을 할때 피해받고 돌아간 일본 가사이 어민의 아들이라고 하였어요.

《원자 무기를 금지하라!》《평화 만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나는 일본 려행에서 재일 동포들이 얼마나 귀국을 희망하는가를, 일본의 로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미국 놈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미워하며 용감히 싸우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놓았을가?

철이는 성냥 가치 24개를 가지고 그림과 같이 네 면이 다 9개가 되게 놓고 그중에서 4가치를 떼여 내고도 네 면이 9개가 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본래의 24개에다 4가치를 더 넣어 가지고 또 네 면이 9개가 되게 놓았습니다. 어떻게 놓았을가요?

☰	☰	☰
☰		☰
☰	☰	☰

3호 현상 문제 해답

꼬마 시험 포전의 면적은
$40m \times 30m = 1,200m^2$
$1m^2$에 내린 비'물층이 4mm 이므로
$0.004m \times 1,200m^2 = 4.8m^3$
상온에서 물 $1m^3 = 1,000\ell$
때문에 꼬마 시험 포전에 내린 비'물은 $4,800\ell$

당선자

함남 신흥군 신흥 중학교 염 필주
평양 제 7 고급 중학교 초급반 정 돈영
평양 제 1 녀자 고급 중학교 인민반 김 미리암
량강도 갑산군 갑산 고중 인민반 문 금순
자강도 송원군 회양 중학교 초급반 장 화평
강원도 고산군 3 중학교 김 정순
평북 정주군 오산 중학교 김 승남
개성시 만월 중학교 초급반 현 동봉, 리 덕삼
황북 연사군 대룡 중학교 초급반 길 태익
황남 해주시 제1 초등 학원 인민반 최 형삼
평남 북창군 광로 중학교 리 두용
함북 경성군 승암 중학교 인민반 4년 정 소문
함북 영안군 영안 초등 학원 초급반 김 창보

———— ☆ ————

편집위원 김 주현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응호 송 정우 정 택선 조 순형

1959년 5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5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5호 (총 115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0452 값 25전 150,000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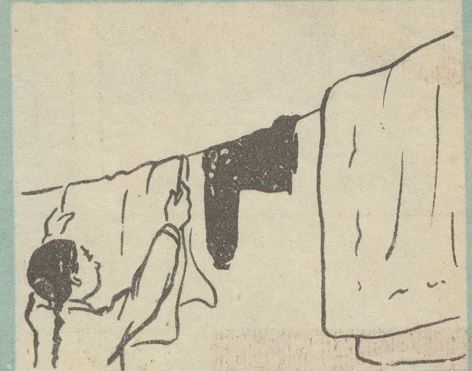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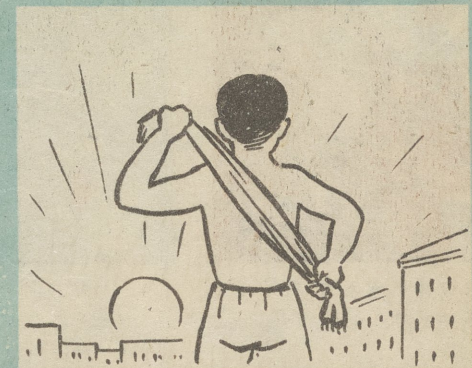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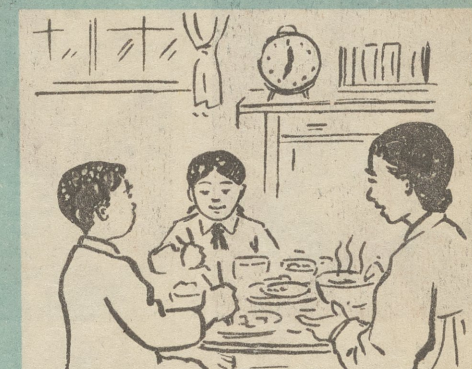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

1. 피부를 항상 깨끗이 하기위하여 목욕을 자주합시다.

2. 손이 더러우면 여러가지 병균이 손에 묻어 입에 들어갑니다. 손을 항상 깨끗이 시습시다.

3. 아침과 자기전에는 반드시 잇발을 닦으며 식사후나 외출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꼭 입안을 양치합시다.

4. 머리는 7~10일에 한번씩 깎으며 자주 감고 빗어야 합니다.

5. 의복과 침구는 항상 깨끗이 삶아 빨며 자주 일광 소독을 해야 합니다.

6.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인민 보건 체조와 랭수 마찰을 합시다.

7.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제때에 하며 너무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마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8. 물이 나쁜 우물이나 강물 또는 지스토마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물을 끓여 마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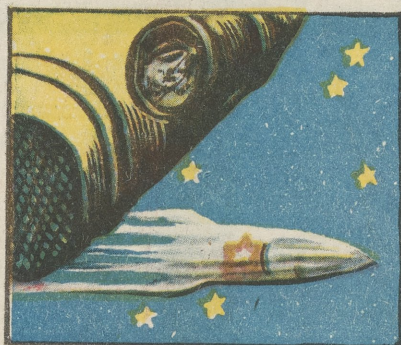
(1) 첫째 로케트는 떨어져 나갔다. 둘째도…마지막 로케트는 더 높이 날았다.

(2) 철이— 앗 몸이 허공에 뜨
른다. 벌써 지구 인력을
어 났구나.

(3) 철이는 텔레비죤으로 지구에 있는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로케트에서 버린 물건들은 로케트 주위를 돌고 있는《위성》이 되였다.

(5) 철이가 탄 로케트는 운석 비
발 속에 들어 갔다.

(6) 철이는 재빨리 뚫어진 구멍을 막았다.

(7) 철이— 쏘련에서 띄운 제 3 인공 위성이다. 만세! 위대한 쏘련 만세!

(8) 철이가 탄 로케트는 수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끝 없는 하
늘로 날았다.

(9) 철이— 저기 태양이 보인다. 굉장히 큰 불덩이구나.

(10) 철이— 달에 가까히 왔다. 자! 내릴 준비를 하자.

(11) 잠시후 철이가 탄 로케트는 달에
내린다. 앞으로 철이 앞에는 어
일이 벌어질가요?